▪ 교회소식 ▪

1. **왕국주일** :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2. **임원회** : 오늘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3. **당회** : 교회의 한 해 살림을 정리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당회가 12월 10일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4. **사업보고** : 모든 부서와 기관은 한 해 살림을 오늘까지 사무실에 보고하시고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 **세례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과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12월 9일(토) 오후 2시, 입교교육은 16일(토) 오후 2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6. **결혼** : 김정아 씨와 정대웅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2월2일(토) 오후3시 퀸스웨딩홀5층 텔루스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7. **신앙실천** : 날이 추워졌습니다.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 떡 대접 : 곽새롬 황인규

다음 주 설교 본문	고전1:4-9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김기석	조성일

	1부 영접위원	강세기	**헌금위원**	이소애
12월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형운 추헌영 이동천 하미림 박진숙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김경혜		

오늘 식당 봉사	이순정 오복순 정연경 정현주 임광호 김혜라 안종일 홍윤선		
다음주식당봉사	김금순 이은정 김애정 서수진 임성옥 신승진 남명진 조성일		
오늘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임주빈

2017-48 11월 26일

109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왕국절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8. 거룩 거룩 거룩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시는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앉아계신 보좌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참되고 의로우신 주님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헛되고 그릇된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진실과 정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낯설음과 추위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이 일상을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온정을 모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계21:3b,4 ····· 인도자

▲ 교 독 문 ····· 65. 시편149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박범희 권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 다 함께

▲ 성경봉독 ····· 계 11:15-19 ····· I. 인도자 II. 이재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 하늘빛중창단
II. 주님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숙이 권혁순 박혜경 김남종 오복순 김병대 김성우 박유경 김애순 김인걸
문영혜 김정근 김정훈 이진영 김준호 곽혜자 김지훈 김철수 유영남 김훈동
유경순 문복순 박석희 조항미 박영희 박옥순 박인혁 방 민 방 준 서해나
신승진 임성옥 오자영 우경환 원용일 최현선 윤수진 윤순우 이광석 이경희
이광섭 김수연 이수자 이우엘 이유진 이응석 이은경 이주경 안상숙 이준림
임광호 임승동 백혜숙 정현선 유병선 하현일 김광우 한성란 무명1

감사헌금

강혜린 권두리 권정이 김남홍 김반야 김영호 박재영 이현정 박준희 이기분
박진주 박창운 허정윤 박혜경 방경선 변종복 김은녕 오현우 이범석 류정욱
이상도 임은영 임종수 정구봉 조병무 송양진 최혜정 한상수 남해린
5여선교회 무명6

생일감사헌금

송상경 이한림 임승동

녹색꿈헌금

김반야 김용진 박효선 김주경 유수진 무명4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빈들

- 고진하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걱이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 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 속 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 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한선희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김진선 김 린 이상미 김가현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주님 주님 주님 크시도다
주님은 다윗 자손 빛나는 새벽별
주님은 유대의 왕 주님 주님
주는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 주님 주님 크시도다
신실하심과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되신 주님
사망의 권세 이기고 살아계셔
영원한 생명되신 주 아멘 아멘
주는 만왕의 왕이시요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의 주 영원 영원 영원히
신실하심과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되신 주는 전능의 주
영원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전능의 주 아멘

말 씀 …… **세상나라는 주님의 것**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2부찬 양 …… 541. 꽃이 피는 봄날에만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힘에 무릎 꿇거나 충성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주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이 세상이 이미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임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담임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큰 이름의 그늘에 열매가 없네

… 모성적인 부드러움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대부분의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사랑이나 자비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징계를 통해서는 한 가지 잘못밖에 시정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해 한 가지 잘못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회의적이다.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진정한 구원의 힘이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고 따뜻함이고 부드러움이라는 사실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태양과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내기를 하는 우화를 잘 알고 있다.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는가? 나그네로 하여금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대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춥고 사나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다.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비추자 나그네는 즐거운 마음으로 외투를 벗어서 손에 들었다.

이 우화는 진정한 힘이 물리적인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난폭하고 사납고 매서운 북풍 같은 물리력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햇빛 같은 사랑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힘이 총이나 칼 같은 물리력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고 무력해질 수 있는 데까지 무력해진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 사건, 무능이 힘을 이긴 사건, 약함이 강함을 이긴 사건, 사랑이 증오를 이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와 같은 역설이 바로 예수 사건의 요체라고 믿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고후 4:18)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힘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물질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물신의 시대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일까?

타락한 세상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길을 찾아 인도해야 할 종교마저 세상의 이런 기류를 따라가는 현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경쟁적으로 교회 건물 평수를 늘리려 하고, 이런저런 명목과 요령으로 헌금을 거두어들이려 안달하는 종교 집단에서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전도를 향한 열심조차 신도 수를 늘리려는 수단으로 순수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 외판원 다루듯 교인들을 자극하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유치한 방법을 동원해 신자들을 확보하려는 경쟁에서,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아니라 물량주의적인 세 과시라는 음침한 동기를 발견하는 나의 눈이 비뚤어진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중세의 수도사 아벨라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당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를 혹평하는 부분이 있다. 그는 안셀무스가 소문과는 달리 별 볼 일 없는 위인임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표현한다.

> 그가 말하는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사뭇 당당하게 보이나, 가까이 다가가서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이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네. 기름진 벌에 우뚝 솟은 떡갈나무처럼 큰 이름의 그늘에 열매가 없네.

예수께서 꾸짖었던 무화과나무처럼 덩치만 크고,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나무는 그 열매에 의해 이름이 붙여지는 법인데, 우리는 정작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잎이나 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알맹이를 외면한 채 껍데기에만 연연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께서 저주하고 아벨라르가 혹평한 불쌍한 나무와 다를 바 없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분주하고 요란하고 화려하고 시끌시끌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다면 말이다.

나는 우치무라 간조의 역설을 좋아하는 편이다.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그의 역설 가운데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을 풀어서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고 해도 크게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아직도 진리에 대해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승우,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복있는사람) 중에서